

발행호: 47호

ISSN 2671-4434

발행일: 2021.11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곽재용, 이태혁

발행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NU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1. ISSUE TALK

[009] 한-라틴아메리카 수교 60주년을 돌아보며, 그리고 또 다른 60년을 향해
김 영 주 (더불어 민주당)

2. LATIN AMERICA FOCUS - “종교와 불평등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015] 2.1.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CELAM)의 양상들 비평

윤 춘 식 (아세안연합신학대학원, ACTS)

[033] 2.2. 불평등과 성서의 만남

홍 인 식 (화해와 전환의 해방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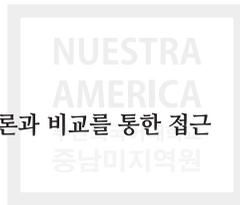
[047] 2.3. 라틴아메리카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라보는 불평등 문제

조 영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3. LATIN AMERICA BOOK JOURNEY

[055]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 이론과 비교를 통한 접근

이 태 혁 (부산외국어대학교)



4. LATIN AMERICA VOICES

[063] 라틴아메리카 “위드” 코로나의 현장속으로

김 순 배 (칠레 센트럴대학교)

5. ILAS 소식

[075] 간추린 소식



폐 간 사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연구소 웹진 <Nuestra América>는 우리 사회의 라틴아메리카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라틴아메리카 ‘어제와 오늘’의 다층적 역동성을 담아왔습니다. 2008년 7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매 호별 라틴아메리카의 최근 이슈, 기획특집, 라틴아메리카 인물, 라틴아메리카 도서의 서평, 라틴아메리카 현지 일상 등과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 정재계 인사, 현지 한인들이 참여하며 국내 최대 라틴아메리카 관련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의 라틴아메리카관련 소통방식을 ‘Text’에서 ‘Visual’로 전환합니다.

이번 웹진 47호를 끝으로 텍스트(text) 형식의 웹진 소통방식에서 디지털(digital) 기반의 <TV Nuestra America (잠정)>로 여러분과의 접촉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에는 새로운 ‘채널’로 라틴 아메리카를 담아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웹진 〈Nuestra América〉에 보여주신 그간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장 원장 임상래 배.



ISSUE TALK

한-중남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돌아보며, 그리고 또 다른 60년을 향해

김영주 (더불어 민주당)

2022년은 한국이 중남미 지역 15개 국가와 수교를 맺은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 중남미의 우정은 60년에 걸쳐 더욱 돈독해졌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62년 중남미 15개국과 연달아 수교를 맺고, 이후에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꾸준히 확대해 1980년대에는 쿠바를 제외한 32개 국가와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의 우방국이다.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다변화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상호 간 신뢰를 넘어 경제·통상, 사회·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여러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준 진정한 친구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해주었으며,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군대를 파견해 주기도 하고, 의약품 등 수많은 구호품까지 지원해주었다. 우리가 힘들 때 앞장서서 도와준 중남미 국가들의 특별한 우정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한국은 국제사회 도움을 받았던 최빈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우정에 보답할 차례다.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역, 인종 간 소득 불평등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 빈곤층 보건 향상과 소득 격차 해소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한 초점을 맞춘 ODA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 5,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례 전수와 경험 전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서로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돼주는 한-중남미 간 우정은 60년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끈끈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K-pop 등 한류 열풍이 중남미 전역에서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으며, 한류를 통한 문화산업 증대 및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어디에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공인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이중 언어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파라과이 등에서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지 학교를 설립·운영된다고 한다.

이 같은 한류 열풍은 중남미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미는 우리의 대표적인 효자 시장이자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원유, 철, 동, 리튬, 니켈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와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서로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길 바란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역할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과 중남미가 함께 해 온 60년 역사를 되새기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와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간에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한국과 중남미가 우정을 뛰어넘어 형제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저자소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여행원 제도 폐지, 채용과 임금 그리고 승진에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앞장섰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했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연구해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서울 영등포갑 지역에서 연이어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됐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돼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재해 근절,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UN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LATIN AMERICA **FOCUS**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CELAM)의 양상들 비평 '발전'에서 '인간향상'의 신학으로

윤 춘 식 (아세안연합신학대학원, ACTS)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총회, Conferencia General del Episcopado Latinoamericano)는 가톨릭 신학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교단 총회를 통해 가톨릭 권에서 가장 진보한 정보·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가톨릭교회에 관련된 종교적 세계관을 정리해 보는 동시에 중남미 대륙에서 개신교 선교의 지평을 열 수 있는 비평문이 될 것이라 여긴다. 2007년 5월31일자로 제5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브라질)가 막을 내렸다. 그동안 다섯 차례나 개최되었던 주교회의의 진면목을 관전해 본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

1. 제1차 회의

(리오 데 자네이로-브라질, 1955. 7. 25-8. 4.)

핵심 의제는 가톨릭 문화에 대한 개념 정리였다. 현대 가톨릭 문화가 겪고 있는 압박은 두 가지이다. 곧 개신교 부흥과 더불어 일어나는 반(反)가톨릭주의 운동이다. 수난 받고 있는 가톨릭 전통문화를 어떻게 방어하며 선전할 것인가? 이것은 가톨릭교에 큰 도전이었다. 가톨릭 교리와 문화는 라틴 백성들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원리요 생명이

었던 것이다. 과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대응할 수 있고,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 획일화되지 않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수뇌부의 긴장이 감돌았다. 이에 가톨릭교회 문화가 라틴아메리카 민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삶의 강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외침이 바로 첫 번째 주교회의의 골자였다.

가톨릭교 모든 신학교 안에서 '가톨릭교적 문화'(Cultura Católica)와 '문화적 상황화'(contexto cultural)라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며, 가톨릭 신학생들이 현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문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지금 세상에서 부상하고 있는 다원 문화 앞에서, 즉 프로테스탄티즘, 공산주의자, 자유주의 경향의 위험성과 세속주의에 대해서 사회정의에 대한 답변을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화의 외형적 분석뿐만 아니라 가톨릭교인의 정체성 안에서 분석해 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직 세상의 비전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영향력과 문화의 초점을 재조정하자는데 관심을 모았다.

에큐메니컬 운동 전개가 하나의 대안책으로 선정되었다. 한 지역 안에서 복음전파를 자극하면서 그 안에서 문화가 발전되도록 지적이며 기술적인 개념이 개발되어야 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원주민 인디오 종족의 낮은 문화 계층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과 종족들의 필요를 채워야 함을 제안했다. 이 주교회의에서는 가톨릭 신학보다도 문화적 개발에 우선권을 두었다. 첫 번 주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기 훨씬 이전에 모였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사회 안에서 가톨릭교회가 어떤 염려와 의무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인식시켜 주었다. 그것은 가톨릭 문화의 방어(옹호)와 동시에 선전(전도)하는 두 가지 문제의 균형이었다.

2. 제2차 회의

(메델린-콜롬비아, 1968. 8. 26-9. 6.)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이후, 여기서 '라틴아메리카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메델린 문헌이 등장한다. 총 3부에 해당하는 의제는 1부- 인간발전의 촉진, 2부- 가톨릭 신앙의 성장, 3부- 가톨릭 가건적 교회의 구조였다.

이 2차 주교회의(총회) 이후 가톨릭교의 '쇄신헌장'이 공포되었고, 전 세계에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가톨릭 지도체제에 영향을 미쳤다. 라틴아메리카의 상황과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선 사회계급 사이의 지나친 불평등을 규탄하고, 경제·정치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어떠한 이념도 무조건 제국주의를 단죄한다고 규정한다.

교황청에서도 이 문헌에 입각하여 반응하며 때로는 우려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가톨릭 지도력을 전망하였다. 메델린 문헌에선 '발전'보다 '해방을 위한 투쟁'이라는 용어가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곧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는 저개발이 존재하고 저개발을 위한 발전에는 강대국의 '착취 개념'이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메델린 문헌은 <발전+해방>이라는 채널을 공식화 한다. 그런데 2차 주교회의 총회엔 라틴아메리카 주교 및 사제단과 전문 옵서버들이 총 500 여명이 참가한 데 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참여자는 성직 대표단 400 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써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대표적 공의회 성격을 부여했다. 주요 실천 의제로 다루어졌던 라틴아메리카 '가난의 문제'와 '해방의 문제'는 구스따보 구띠에레스(페루)의

저서 「해방신학」 출간 이전에 이미 가톨릭교회 안팎에서 해방신학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음 글은 한국 가톨릭이 메델린 회의 이후에 부기한 코멘트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종속과 빈곤을 조장하는 구조적 불의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가난한 민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해방의 함성을 듣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은 '가난한 교회'다. 메델린의 주교들이 보는 '가난한 교회'는 정신적 가난을 선포하고 살아가면서 불의와 죄로 인하여 초래된 물질적 가난을 고발하며, 나아가서 하나의 투신으로서 스스로 가난을 실천하는 교회다. 그러자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 자체 내의 인력과 자원을 재분배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득권층과의 유대를 포기하고 가난한 미중과 연대를 맺어야 하며, 그들의 문제와 투쟁을 교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깨닫는다. 이 때문에 메델린 문헌에서는 '해방'이라는 용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된다. 발전이라는 용어가 주는 개량적인 성격 때문이다. 결국 메델린 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직면한 선택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다른 어느 문헌보다 더욱 명확하다는 점이다. 주교들은 사회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과 관련된 쟁점을 선명하게 하였으며,

전체 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3. 제3차 회의

(푸에블라 데 로스안헬레스- 멕시코, 1979. 1. 27-2. 13.)

3차 주교회의에서는 5가지 의제가 급선무였다. 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실제 사목(목회)을 위한 비전 제시 ②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현실에 대한 하느님(하나님)의 데시그니오스(구원 계획) ③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교 내부의 복음화 문제 : 친교와 참여 ④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선교란? ⑤ 영성운동으로써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는데, 교회의 사목(목회)적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 편에서 가난을 선택할 것, 그리고 수많은 대상 중에 청년을 선택할 것을 요한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직에 선출되고 나서 처음으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당면한 주된 문제는 '메델린 문헌'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하며, 정치적인 압제와 가톨릭교 내의 보수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메델린 회의의 개혁노선을 지지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원론적 사회의 건설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선교적 협력기준이 돋보인다. 동시에 가톨릭교의 사회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인용표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독자적인 장으로 선포함으로써 사회구조의 개혁과 의식의 변화까지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가톨릭교회가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선 민중의 근심을 들으며 노동하는 인간이 되기를 힘쓰며, '인간의 향상과 공동체의 해방'을 천명한다. 교황은 응답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선택'이라는 회칙을 반포하게 된다. 노동과 가난의 문제를 하느님(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었다.

4. 제4차 회의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1992. 10. 12-28.)

주요 의제는 세 가지였다. ① 새 복음화 ② 인간화 증진 ③ 가톨릭교 문화 정립으로 나타난다. 4차 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과 강조였다. 4차 회의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히 13:8)에

두고서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의 전망(메델린과 푸에블라 결의의 연장선에서), 교황의 시각과 현실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신학적 대안을 다루었다.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를 위해 교황이 중재한 40개의 요점 정리는 다채롭다. 여기에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논지인 '시대적 징표 파악'에서부터 스무 번째 '가족의 돌봄이 없는 아동 문제', 마흔 번째인 '세례의 신실성'에 대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논항들에 약방의 감초처럼 덧붙여 지는 것이 마리아론이다(39번째 언급).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바가 무색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마리아에 관해서 공경과 흠숭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정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개회 훈화에서 첨가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적응(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의 화두가 되었던 '아쵸르나멘토')과 환경 문제, 생명과 참여 문제.... 특히 생명 문제와 환경 문제가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 부의 공정한 분배, 피조물 간에 공평한 나눔의 국제적 질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차 회의 이후에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회칙'인 <생명의 복음>이 출간된다. 이때부터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에서는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더욱 깊이 접근하게 된다. 오늘날 가톨릭신학의 모델이 된 인간화와 생명, 환경 문제가 기독교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산토 도밍고 회의에서 발제된 의안임에는 틀림없다. 사실 그 이전에 생명과 환경은 성경에서 제시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에 관여된 피조세계 체제이지만, 가톨릭교가 먼저 의제로 담론하였던 것이다.

5. 제5차 회의

(아파레시다 마리아 성지- 브라질, 2007. 5. 13-5. 31.)

교황 베네딕토 16세 주재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연안 등) 26개국과 독립 자치국이 된 섬들을 합하여 30여 개 나라에서 162명의 주교를 포함해 266명의 가톨릭교 수뇌부가 참여하였다. 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선교사들, 우리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이었다. 곧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의 현주소와 진단,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며 가톨릭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이다. 이

회의에선 라틴아메리카 주교단의 친교와 연대, 봉사의 정신에서 어려운 국가들의 상황을 토론하고 가톨릭교 위기 진단을 확인했다.¹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응답하는 기회를 선교로 전환하며 참여시키는 현대적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한 의제에 대해선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없으나, 2006년 10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성격을 띤 '마누엘 라라인 신학연구소'(Centro Teologico Manuel Larrain; 칠레 뽀띠피시아 가톨릭대학과 알베르토 우르따도 대학교 소속)가 간행한 4가지 항목에 의하면,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²

① 시기의 징조에 나타난 신학적 안목 ② 제자와 선교사로서의 부름 ③ 복음의 효력 ④ 이 시대에 맞는 복음화를 위한 과제이다.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제안한 선교적 대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가톨릭교가 한참 동안 '선교'라는 말 대신 '새복음화'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다시 선교를 언급

1 <http://www.radioestrella.net/index.php>

2 Samuel Yanez y Diego Garcia, El Porvenir de los Catolicos latinoamericanos; Hacia la V Conferencia General del Episcopado Latinoamericano y del Caribe-Aparecida 2007 (Santiago : Centro Teologico Manuel Larrain y Universidad Alberto Hurtado, 2006), 10-11.

하는 자리로 돌아 왔다.

그런데 교황은 개막식 훈화를 통해 두 가지 위험을 지적했다.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발전의 불균형이며, 다른 하나는 가톨릭교 신자들의 정체성 위험이다. 환언하면 가톨릭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인 의식의 발로이며, 가톨릭교회 현실을 직시하자는 자성론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 신앙을 다시금 쇄신하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의 노출과 정의사회 구현에 대해서 피력했다.

6. 가톨릭교회의 현실:

6차로의 연결인가? 전환인가?

이상 5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의 공통점을 종합해 본다면, 가톨릭교회의 문화 정립과 새 복음화에 있어서 사목적 반성과 경제·사회의 쇄신과 참여로 집약된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약 71 %가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의 대륙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가톨릭교의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권의 가톨

릭교 신자는 4-5%나 줄었으며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오순절 교회 등 타 그리스도교 교파로 개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같은 궤도에서 보아야 한다.

2005년 8월 2-4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라틴아메리카 남부지역의 주교단이 협력한 소공동체 종사자 모임이 있었다. 여기서 제5차 총회(브라질)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 모임 역시 가톨릭교를 향한 도전 세력과 현재의 가톨릭교 상황에 대해 냉혹하게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가톨릭교 현실상황이란 무엇인가? 즉 가톨릭교 교세의 둔화 속에 물오른 오순절교회의 약진이다. 오순절교회는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한층 변수를 더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선 가톨릭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라질 의회 의원 600 명 가운데 약 10%가 복음주의자들이며 이들 대다수가 오순절 교인들이다. 이는 같은 양상으로 라틴권에 파급되고 있다. 오순절파 교인들은 가톨릭신자들의 개종에 관해 의무감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오순절파 '뉴 포럼'에서 나타났다. 오순절파 교회는 확실히

가톨릭교 문화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서민-빈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회 계층 회복(사회 기득권층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전파로써 교회 소속감 제공)과 신앙적 치유사역을 더 성실하게 감당한다.

한편 가톨릭교는 라틴아메리카 토착문화에 민감하게 적응함으로써 복음의 의미 자체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다름 아닌 가톨릭교의 현주소가 갖는 위험과는 별개인 신학적 표류를 말한다. 따라서 상황화(비판적 상황화) 되지 못한 '적용주의'(Accommodation)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이방 문화와도 유기적 관련을 맺기 때문에 풍속이나 절기의 이교적 의미를 구분치 않고서, 복음의 본질 자체도 적용해 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익나티우스 로올라가 이끌었던 예수회의 선교전략도 결국 적용화 문제의 남용으로써 교황청과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가톨릭교 선교전략엔 '엘렙티스' 이론이 지극히 열악함을 볼 수 있다. 아무튼 라틴아메리카의 다섯 번에 걸친 주교회의도 성경 중심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이지 못했다.

2021년 10월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도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의 난맥을 겪고 있다. 제5차 주교회의를 치룬지도 14년이 지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주교총회(CELAM)의 개막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첫 번째 전체 교회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오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예정이라 한다. 그러면 라틴의 주교총회는 사라지는 것일까? 거기에 관한 정답은 교황 자신이 알려 줄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첫 해 총회의 근본적인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곳에서 받은 성소에 응답하며 소통하는 제자와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전달했다. 교황의 이러한 발표 영상에서 "소규모 대표단이 멕시코 수도에서 직접 만날 것이며, 많은 다른 가톨릭 형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면 및 가상 장소에 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라틴아메리카 주교회는 "평신도와 수도자, 사제, 주교, 추기경을 포함하여 회의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라고 화답했다.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첫 라틴아메리카 교회회의가 이전과 같은 [라틴권 주교총회]

가 아니라 평신도와 수도자들이 함께하는 <하느님(하나님) 백성의 모임>임을 확인했다. "이 교회는 하느님(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과 분리된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느님(하나님) 백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어떠한 배제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라고 강조했다.³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전체 교회회의가 과거(2007년) 브라질의 아파레시다 시티에서 열렸던 마지막 주교총회를 이어주는 전환을 모색하는가 보다. 교황은 무언가의 도전을 심화하기 위해 전체 교회회의라는 명분으로 소위 라틴아메리카 수호성인인 멕시코의 과달루페의 동정녀 탄생 500주년이 되는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약 8,420만 명의 신자가 살고 있는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두 번째 국가이다. 결론으로 이러한 필자의 메시지를 깊이 접한 아마존 사역자 김홍구 선교사의 개혁정신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가톨릭교 교황의 자생, 자정 노력을 보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위상 및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³ <http://www.swissinfo.ch>(칠레)

저자소개



목사 문학평론가로 ACTS 라틴아메리카 선교연구원장 ACTS 아신대학 선교 학과 교수 은퇴(Ph. D / D. Min), 고신 총회파송 중남미(아르헨티나-파나마) 원주민선교사로 28년간 사역함. 현재 GMTI 선교교육원 교수 및 아르헨티나 토바 중고등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역서로는 현대교회를 위한 선교교육(영문), 로마서 강해 노트북(영문), Misión Puesta en Acción 행동하는 선교, 풀잎 속의 잉카(문학수첩) 등이 있다.



LATIN AMERICA **FOCUS**

불평등과 성서의 만남

홍인식 (화해와 전환의 해방신학연구소장)

1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신학적 관점

(평등은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인간 삶의 출발점이 아니다)

성서는 평등과 불평등에 대하여 논리적 전개를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성서는 평등과 불평등을 대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성서는 인간이 평등과 불평등에 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편파적이며 소수의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한 사회 형성의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의 평등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성서는 평등은 인간 삶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개념을 인간의 삶이 출발하는 지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불평등의 관계가 인간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평등의 관계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평등의 관계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평등한 관계는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삶과 사회는 모두가 바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행위를 완벽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갈등하며 투쟁하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권력의 남용과 오용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넘어서기 위해 내면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산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인간 존재의 차원으로부터 이해되는 평등과 연대적 사회의 형성은 모든 인간의 과제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특정한 문화에 속해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과제가 아니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전 인류적인 과제이다. 그것은 특별한 기구나 사회에게 부여된 특별한 과제가 아니다. 평등사회의 형성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전 인류적인 과제이다.

2 불평등 사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신의 형상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신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형상의 표현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정한 신이 다른 신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평등을 주장하거나 혹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의 개념은 인간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개인, 사회적 기구나 제도, 문화, 국가 등의 행위에 따라 발전되어진다. 이것은 인간사회는 인간화 과정에서 우리가 평등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감으로써 점진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평등사회는 완벽한 그리고 완성된 형태로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희생하기도 한다.

역사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은 평등 혹은 불평등에 관하여 어떤 태도와 행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갖게 되는 신의 형상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신의 “생명의 어머니로서의 형상”은 인간의 연대와 평등의 실천으로 의해 점차 형성된다. 반면 “전쟁의 신, 바알”의 경우에는 비연대적 행동의 실천으로 더욱 강화된다. 강한 자, 권력자 편에서 있는 신의 형상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신의 형상을 강화한다. 신을 어떤 형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그의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대와 평등의 개념 형성과정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내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자. 구석기 시대(기원전 100,000~10,000)에 인류는 평등의 개념을 창출해 내는 신의 형상을 발견한다. 어머니-신의 존재이다. 반면 신석기 시대(기원전 8,000~4,000)에 인류는 또 다른 신의 형상을 발견한다.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재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번영의 신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농업의 잉여 생산품에 대한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신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은 “약육강식”의 법칙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은 평등의 신인가? 아니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신의 형상인가?

3. 불평등의 세계화 시대에서 성서 이해하기 이스라엘, 불평등한 사회의 피해자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상징되는 군주국가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이집트는 수직적인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들은 노예제도를 창출하고, 잔혹한 세금징수를 자행하고

군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같은 불평등한 사회의 모델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종교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히브리)사람은 철저하게 불평등한 사회의 제도와 종교 아래에서 피해를 받는 민중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이 사는 이집트 사회는 철저하게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고착된 사회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은 불평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대적 권위와 힘을 군주에게 부여한다.

불평등의 피해자가 평등을 요구할 수 있다.

히브리 민중의 이집트 탈출의 의미를 평등과 연관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집트로부터 해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대안적인 사회 형성을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첫 삶을 토지 균등 분배로 시작한다. (민수기 26:53) 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원리(승리자는 패배자의 목숨을 취한다. 패자는 승자의 노예가 된다)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과연 당시의 잔혹한 승자독식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떤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당시의 이집트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가?
왜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이집트 모델의 사회를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을까? (마태 20:25~28)

구약과 신약의 요구: 평등을 향한 투쟁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등의 추구하고 불평등의 죄 사이에서
방황하는 민중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잔혹하고 참담한 불평등의 이야기를 성서가
전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등의 죄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서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인간적인 사회, 즉 평등사회를 이룰 것을 명령하기 위함
이다.

예언자, 평등사회를 호소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최악의 억압을 경험한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사회적 평등 혹은 불평등의 사회에서의
삶의 차이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등의 사회 모델을
저주하고 평등사회를 향한 투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고 평등을 사랑하는 해방자 하나님을 숭배하기에 이른다. 그들은 그동안 잊혔던 조상들이 살았던 평등사회의 원리를 회복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들은 조상들의 평등에 기초한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할례의식, 탈-이집트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농사와 관련된 축제는 평등사회 구현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에는 권력의 상징인 군주왕정제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조를 수립하게 되며 또다시 불평등의 사회로 향하게 된다. 왕조의 출현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한다. 예언자들은 이들을 대변하면서 불평등을 유발하는 권력자들과 군주체제를 향한 비판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명기 학파, 불평등 사회를 고발하다.

예언 전통의 계승자들은 그 후 “신명기 학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룹을 형성한다. 그들은 탈이집트 운동의 평등 정신을 계승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등의 시대는 북이스라엘(기원전 722년)과 남 유다의 멸망(기원전 587년)

으로 일단락된다. 야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두 왕국은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침략당하고, 탈취당하면서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왕국의 멸망 소식은 이스라엘로 또다시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왕국의 멸망으로 그들은 두 왕국이 이룩하였던 불평등의 사회는 결코 야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회상하고 불평등 사회를 축하하였던 모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평등 사회의 역군들에 대한 비판의 기록을 남긴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그의 자손을 비인간화의 죄인으로 저주하기도 한다. 창세기 5~9장에서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작은 나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제국들을 그리고 11장에서는 억압의 문화와 정치를 정당화하는 종교를 비판하고 저주한다.

4. 해방신학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불평등과 평등

편파적(불공평한) 하나님(Partial God):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 (Neutral)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하나님의 공평을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학적이며 실천적(프랙시스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공평은 단순한 중립적인 위치를 뛰어넘어야 한다. 사회학적이며 실천적인(프랙시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 공평은 오히려 불공평(편파적)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의 불평등으로 진정한 공평(평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편파성(불평등, 불공평)으로부터 출발하는 평등(공평)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음의 하느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편에 서 있는 분이시다. 해방신학의 하느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혹은 죽음이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시는 편파성을 통하여 온전한 공평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평등(공평)함은 기울어진 평등(공평),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의미의 불평등이다. 하나님의 공평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냉정하고 차가운 공정함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공평은 어렵고 힘든 자에게 더욱 가까이 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겸양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결국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절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의 은사를 더해 주신다.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눔과 베품을 위한 포기의 은사를 더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모두에게 똑같은 형태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향하는 성서의 불평등(편파성)과 평등(공평)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는 생명의 공평함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것은 결국 악인들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우리를 살려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해방신학의 하나님은 우리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자신의 공평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가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과 차이(불평등)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소개



홍인식 박사는 파라과이 아순시온대학교 경영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르헨티나 연합신학대학원(ISEDET)에서 호

세 미게스 보니노 박사의 지도로 박사학위(해방신학 전공)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사로서 중남미 선교사로 25년간 사역했으며, 아르헨티나 연합신학대학, 쿠바 개신교신학대학, 멕시코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화해와 전환의 해방신학연구소장, 인터넷 언론 에큐메니안 대표 및 NCKK 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역서로는 『예수 그 2000년의 믿음과 사랑』, 『기독교 영성과 윤리(공저)』와 『욕구와 시장 그리고 신학』, 『해방신학 이야기』 등이 있다.



LATIN AMERICA **FOCUS**

라틴아메리카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라보는 불평등 문제

조 영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 대주교는 라틴아메리카 출신으로서 최초로 교황이 된 인물이다. 콘클라베를 거치며 교황직을 수행하는 동안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채택했을 만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르다. 이 제 3세계 출신 성직자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출신답게 세계와 인류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가중시키는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염려를 자주 표명했다. 교황은 2020년 8월 26일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데 반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부의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많은 수의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교육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불평등 상황을 우려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세계에서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일반 알현 때의 훈화나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자신이 반포한 교회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선포한

사도적 권고인 <복음의 기쁨(2013)>이 가장 대표적인 교황 프란치스코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교황프란치스코는 극단적 경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경계하고, 돈의 지배와 자본을 인간보다 중시하는 배제적인 경제 시스템을 비판한다. 특히 그의 조국인 아르헨티나는 “병든 경제”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2002년 경제 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정치, 경제적 혼란은 결국 공동체 붕괴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세계 경제 체제가 단순한 경제적 착취를 심화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많은 약자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의 체제임을 강조한다. <복음의 기쁨> 53항은 배제의 체제가 야기하는 불평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런 불평등과 배제의 구조가 단지 몇몇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가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신격화된 시장과 시장만능주의이다. 돈이 인간에 봉사해야지 인간이 돈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오늘날 돈과 자본, 시장은 구약의 금송아지처럼 우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장과 자본이 국가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지만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까지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복음의 기쁨> 57항에서 인간에 봉사하지 않는 금융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회 질서를 급격하게 위협하는 시장과 자본의 절대화 풍조를 지적할 뿐 아니라 낙수효과라는

허상을 선전하면서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도 경계한다.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만큼 극단적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정사정없는 자본주의가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지나친 개인주의는 가족의 유대까지 왜곡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불평등 문제를 인류의 병으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불평등이 폭력을 야기하고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배제된 주민, 인종, 민족, 국가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불평등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시급한 실용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를 약화시키고 침체시켜 새로운 위기로 이끌기 마련인 병폐에서 사회가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급한 요구들에만 대응하는 복지 계획들은 임시방편일 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장과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 등은 사회 병폐의 뿌리입니다.(〈복음의 기쁨〉 202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누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몫을 뺏는 처사라고 지적한다(〈복음의 기쁨〉 57항). 특히 분배문제로 인한 불공정과 낭비풍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부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연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교황은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에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의 모든 재화는 인류의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가톨릭 사회교리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미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발표한 〈민족들의 발전〉 22항은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사유재산권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남들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까지 자신을 위해서 독점해 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것이다.

교황도 이런 노선을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재화와 소득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도 역시 사적 소유권의 절대화에 반대하고 공공선에 부합하는 조건하에서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복음의 기쁨〉 189항 참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자체가 복잡한 상황 앞에서 각 지역에 알맞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교회도 세상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했다. 교황이 볼 때, 교회가 불평등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의 실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복음의 기쁨〉 188항 참고). 특히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그의 신학 노선이 라틴아메리카의 주교들과 해방신학자들이 선언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같은 흐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소개



조영현 교수는 멕시코국립대학교 (UNAM)에서 중남미지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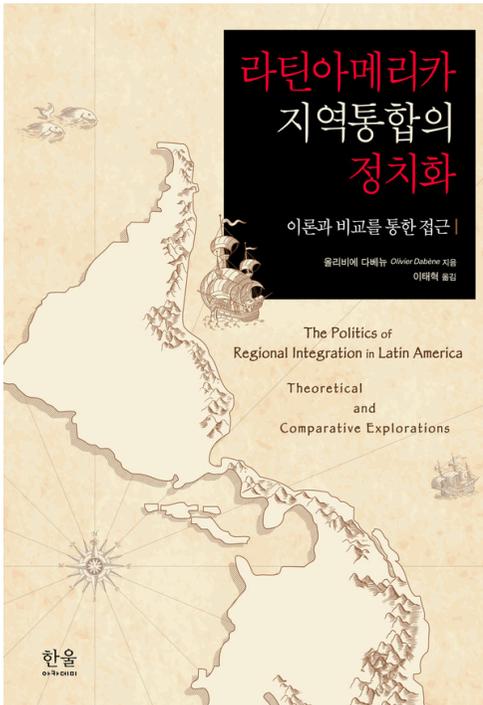
『Sacerdotes y transformación social en Perú(1968-1975)』, 『라틴아메리카 명저 산책(공저)』, 『디코딩 라틴아메리카- 20개 코드(공저)』, 『인종과 불평등(공저)』 및 국내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LATIN AMERICA BOOK JOURNEY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 이론과 비교를 통한 접근

이 태 혁 (부산외국어대학교)



역내 단위 지역통합에 대해 설명력을 가진 기존의 학문적 접근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도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한 접근은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기존의 접근과 다르거나 달라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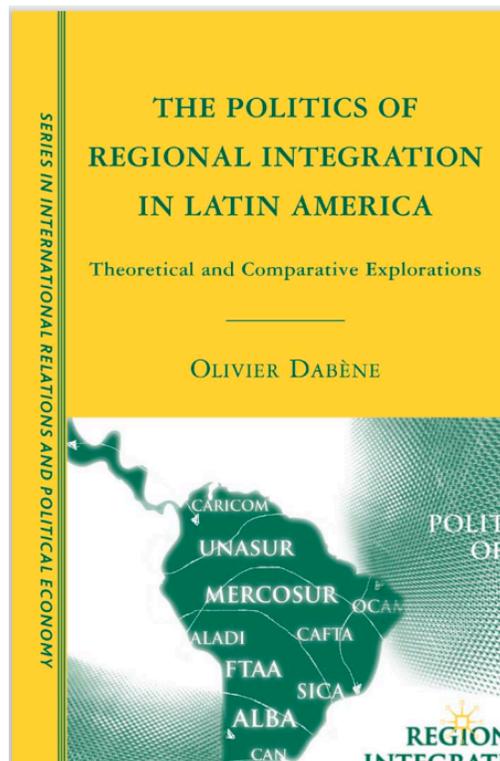
열쇠는 유럽이다.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 명(名) 그리고 지역 명(命)이 유럽 서구 중심 문명권에 의해 발현되었다. 서구중심주의 사조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가 ‘드디어’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곳엔 유럽의 ‘것’보다 더 발전된 문명이 이미 있었다. 아스텍, 마야, 잉카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서가 아니다. 반유럽주의 또는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성과 재현’이라는 라틴아메리카 주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도서는 더욱 아니다. 라틴아메리카가 역설과

모순으로 점철된 대륙이듯이, 본서 역시 역설과 모순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선과 접근이 본서의 특징이다. 먼저 저자가 유럽인이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 올리비에 다베뉴(Olivier Dabene)는 실상 유럽 지역통합 연구에도 정통한 학자이다. 다베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특성이자 ‘본 게임’이라고 진단하며 동시에 역설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긴’ 역사에 대한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지역통합과 지역주의(regionalism)는 불안정하며 실패의 역사이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라틴아메리카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지속된 근현대 지역통합의 긴 역사를 품고 있는 다른 대륙인 것이다. 1948년 이미 중미 국가들은 중미 고등교육의회(Central American Council of Higher Education, CSUCA)의 창설로 고등교육 영역에 대한 기능적 협력을 이행했다. 그 이후 1951년에는 중미국가들이 중미 기구(Organization of Central American States, Organización de Estados Centroamericanos, or ODECA)를 출범시켜 다자조약 협정 체결로 이행되었다. 그리고

중미 지역은 적어도 25차례 역내 재결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난장(亂場)의 특성을 지니며, 21세기 현재에도 우리는 역내 다양한 층위의 지역 통합의 부침(ups and downs)을 목도할 수 있다. 실상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쟁취 이래로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를 위시로 한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재현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일련의 부침 사이 클은 통합 관련 이론화 및 전망을 난해하게 한다. 즉 ‘불안정 속에서의 지속성, 위기 가운데에서의 탄력성’이 라틴아메리카 통합 관련 특성으로 기존의 지역통합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역내 통합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적 질문은 ‘어떻게 그리고 왜 국가들이 주권을 양보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온전한 주권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통합과정을 지속화 하느냐’에 있다. 대안적 접근과 사유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5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역 통합과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의 ‘특성(characteristics)’으로 안내한다. 제1부는 지역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제시와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안착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다. 제2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지역통합, 특히 경제적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정치적 도구화(political instrumentalization)라고 비판한다. 제3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 디자인의 정도와 발전에 대한 연구다. 특히 디마지오(DiMaggio)와 파월(Powell)의 제도적 동형이설(Institutional Isomorphism) 접근으로

안데안 국가연합과 MERCOSUR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 기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4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할 등과 관련된 연구다. 특히 민주주의의 특성인 대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재분배와 관련된 불평등 민주주의 등 3가지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해 분석·고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통합의 연구 단위를 하부단위(sub-regional)에서 미주대륙(hemispheric)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21세기 베네수엘라의故우고 차베스 대통령 등 급진적 좌파의 출현에 따른 일련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통합에 대한 수사(rhetoric)와 실행(practice)에 대한 비판적 식견 또한 담겨져 있다.

본서는 기존의 유럽중심 지역통합 관련 학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과 결부된 진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을 도모했다. 즉, 기존의 유럽 경험에 근거한 통합의 고전적 접근은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정치적 권위를 통합하며, 목적, 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 구축 등의 방법론적 접근이다. 아울러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경제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통합 관계가

국내 주요 규제와 정책의 권한까지 초국가적 단위로의 전이에 의해 지역통합이 확장된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지역통합의 기존 접근이 라틴아메리카 ‘몰이해’라고 비판하며 유럽 중심주의 논쟁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통합 과정을 재조명했으며, 특히 국가 간 협정 및 사회간 소통과 교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덧붙여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국별 민주화와 지역통합과정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역작이라 할 수 있다. (대학지성 In&Out 2021년 9월 27일자 ‘Books’ 게재됨)

저자소개



미국 UCLA에서 중남미 지역학,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으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했으며, 영국 York 대학교에서 국제관계/개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의 HK연구교수로 있다. 전 지구적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위치’ 그리고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 내 글로벌성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위기와 라틴아메리카적 대안을 다층적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구상’, 편승과 균형사이의 라틴아메리카”, “SDGs and Inequality: Towards an Ontology of State Intervention?”, “After Hegemony or ‘Still’ Hegemony?: 아이티의 정치경제적 저개발성과 반정부시위” 외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세계화를 다시 묻다》(공저), 《이주와 불평등》(공저), 《Desigualdades, Pobreza y Papel del Estado en America Latina》(공저) 등이 있다.



LATIN AMERICA VOICES

라틴아메리카 '위드 코로나'의 현장속으로

김 순 배 (칠레 센트럴대학교)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일상을 되찾으려는 칠레의 ‘위드 코로나’ 모습이다. 공원과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친다. 몇 달째 공원조차 걸어 잠그고, 식당은 배달만 했던 모습에 비하면 코로나 19는 이제 일상과 뒤섞였다. 토요일 한인 식당 앞에는 젊은 칠레인들이 수십 명씩 길게 줄을 늘어섰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한인 상인들에게 한류가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 나도 토요일 점심께 한국 슈퍼마켓에 가려다, 줄이 길어서 덜 알려진 곳으로 바꿨다. 한인 상인들은 “주말은 거의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19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다. 11월 6일 신규 확진자가 2895명이 발생했다. 9월 7일 신규 확진자 273명을 기록하는 등 9월 말 각종 제한을 풀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시기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다. 확진자가 증가하자 10월 27일부터 수도권은 다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민들은 이미 무더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스크만 썼지, 코로나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공원 입구에 체온계가 있지만, 그냥 통과해도 막지 않는다. 지난 달 중학생 딸의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열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었을 뿐이다. 사람들도 이제 버틸 만큼 버틴 분위기다.

할로윈 파티 때는 아파트와 거리 곳곳에 할로윈 복장을 하고 무리로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규제와 긴장이 풀린 것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된 탓도 있지만, 칠레의 높은 예방 접종률 덕분이다. 2차까지 모두 접종한 비율이 11월 5일 현재 90%를 넘어섰다. 3차 추가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600만명에 이르러, 인구 100명당 약 32명에 해당한다. 이스라엘과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구 1900만명 남짓의 칠레는 2035만 회분의 중국 시노백을 접종해서, 초기 접종률을 끌어올렸다. 이후 화이자 백신 접종을 늘리면서, 960만 회분이 접종됐다. 지금은 6살 어린이까지 백신을 맞고 있다.

이래저래 완전한 일상 복귀는 아직 멀었다. 대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점진적으로 늘리라는데, 교수나 학생들이 코로나 기간에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가 많아 대면 수업이 쉽지 않다.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데 굳이 현장수업을 해야 되느냐?”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강의실에 오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혼합수업의 경우, 학생의 겨우 20% 정도만 학교에 나온다. 정상출근하는 직장인들

이 늘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실에는 여전히 배달물이 이어져, 각종 배달음식과 물건으로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코로나 대유행 전에는 없던 모습이다.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대면/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진행하고 있다. 중학생 딸도 오전에만 학교에 간다. 그리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그전에 하루 종일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오전 수업 조차 격주로 학교에 가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셈이다. 주변의 다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사이 사람들은 모두 지쳤다. 학생들은 스트레스 탓에 우울증을 겪으면서 휴학상담이 늘었다. 그래서 대학교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휴일이면, 아예 그 주에 임시 휴교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 한인들도 코로나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11월 1일 한인의 날 행사는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평년 같으면 한인 상업지역인 빠뜨로나또 지역의 학교에서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운동경기도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

됐다. 한글학교도 거의 2년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동문회를 하지 않은 건 거의 2년이 다 되간다. 그나마, 11월부터 칠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격리 규정이 완화돼 한인사회는 위로를 얻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실험이 시작됐지만, 예전과는 달라졌다.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옷가게는 여러 곳이 문을 닫았다. 칠레는 2019년 10월 대규모 시위와 치안불안 등으로 인해서, 이들 상권은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타격을 받았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가던 차에, 대규모 시위와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이 겹쳤다. 한편으로 여러 한인들은 위기를 기회삼아, 오프라인 도매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고 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서 더 수익을 거둔 곳도 많다고 한다. 물류난 속에서 재고가 많던 상점들은 “정말 없어서 못 팔았다”는 것이다.

암튼 일상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앞날이다. 칠레는 지금껏 세 번의 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먼 훗날을 따질 때냐는 논리지만,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비판하던 연금을 찾아 썼으니 노후 준비는

더 취약해졌다. 지금은 연금 4차 인출을 놓고 의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1차 인출 때는 가입자의 98.6%, 2차는 97.2%, 3차는 97.5%가 연금을 찾아 썼다. 이제 연금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가입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

물가는 날마다 뛰고 경제는 불안하다. 1달러가 810페소를 웃도는 달러화 가치 상승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칠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개월 전인 5월 9일, 1달러에 694페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페소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금 추세라면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 물건 값이 뛰어서 비싸졌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물류난에 오가는 화물선이 줄어서, 한인 슈퍼도 선반에 상품이 때로는 텅텅 빈 때가 자주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칠레의 모습이지만, 팍팍한 주변국의 모습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칠레 북부는 고국을 떠난 이민자가 밀려온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가 크게 늘었다. 이제 칠레에서 이민자가 약 140만명, 칠레 전체 인구의 약 7%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개월간 5만명 넘는 밀입국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베네수엘라 출신 2만 5300명, 볼리비아 4500명, 콜롬비아 1380명, 아이티 1009명 등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입국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국을 떠났지만,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민자가 늘면서, 10월에는 북부 이끼계 지역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칠레 현지인들과 격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자리 걱정과 코로나 전염 우려까지 겹쳐서, 이민자들과 현지인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불법이민자 1500명을 추방할 계획이다.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다. 지난 10월 18일, 칠레 대규모 시위 2주년에는 다시 격렬한 시위가 되풀이됐다. 시위의 중심이 된 이탈리아 광장에서는 아직도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진다. 칠레 남쪽은 마푸체 원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심해져, 화물트럭 및 학교 등에 대한 방화가 이어지고 있다. 새 헌법제정을 위해서 구성된 제헌회의도 조용한 날이 없다. 기존 정치세력과 신규세력 등이 얽히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와 운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11월 21일 대선과 상하원의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거리 곳곳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후보들의 캠페인이 이어진다. 대선에는 좌파연합 가브리엘 보리치와 극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가 여론조사 선두를 겨루고 있다.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인 35세의 보리치와 피노체트 군사독재를 옹호하는 카스트는 극과 극의 모습이다. 2년 전 칠레를 뒤흔든 대규모 시위에서 터져 나온 과감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적 시위와 급격한 변화를 불안해하며 안정을 희망하는 세력이 맞대결하고 있다. 결국, 12월 대선 결선투표까지 가면서 긴장이 달아오를 것이다. 칠레는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수많은 불안과 ‘위드’를 하고 있다.



사진1 설명: 10월 말, 토요일 오전에 칠레 산티아고 빠뜨로나도 지역에 위치한 한인 슈퍼 및 한국 식당 앞에 칠레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2 설명: 11월 4일 저녁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프로비덴시아 지역의 한 바깥에, 손님들이 가득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3 설명: 11월 4일 저녁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 프로비덴시아 지역의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춤을 연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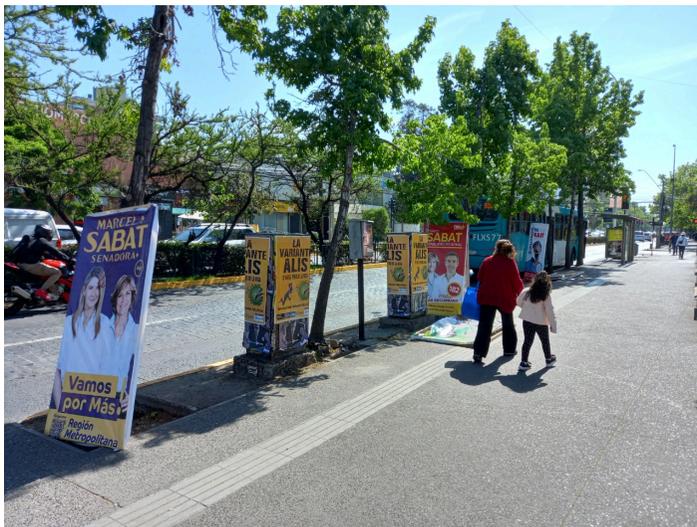


사진 4 설명: 11월 3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 프로비덴시아 지역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선거 입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저자소개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신문사에서 1999년~2011년 기자로 근무하였다. 칠레대에서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칠레센트랄대학교(UCEN) 비교한국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IIAS NEWS

간추린 소식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1.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2021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1.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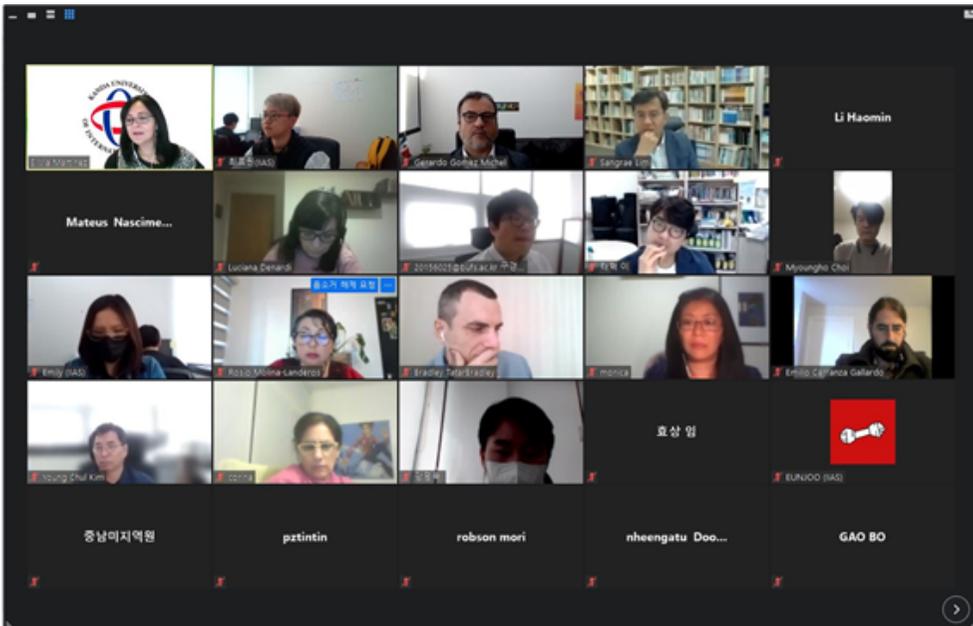


(2021년 5월 13일에 개최한 중남미지역원 2021년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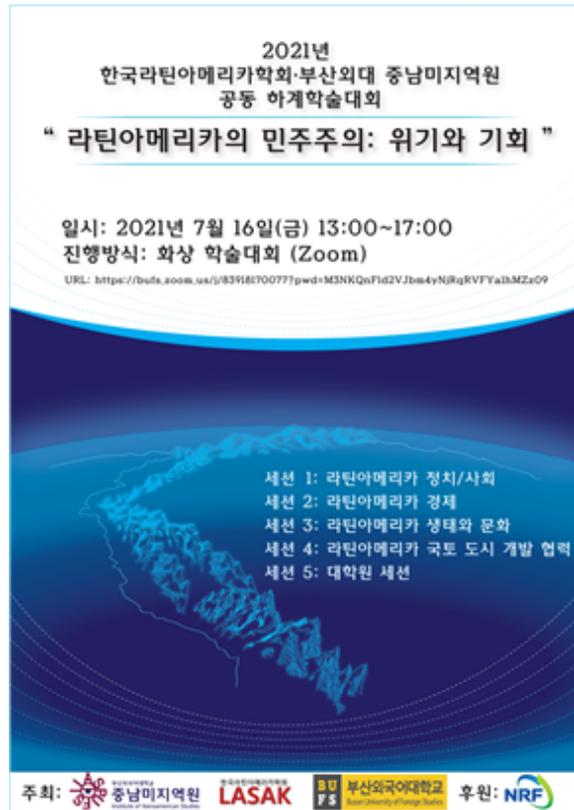
중남미지역원은 5월 13일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의 일환으로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라틴아메리카 헤리티지, 로컬 그리고 글로벌의 모두 6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양 대륙의 학자들이 참여하며 ‘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쌍방향 연구자 교류와 학술교류 증진의 성과가 있었다.



본 학술대회와 오전 세션은 중남미 현지 학자들의 참석을 고려해서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와 페루 해외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하였으며, 오후 세션은 라틴아메리카의 생태문명, 라틴아메리카의 평등과 불평등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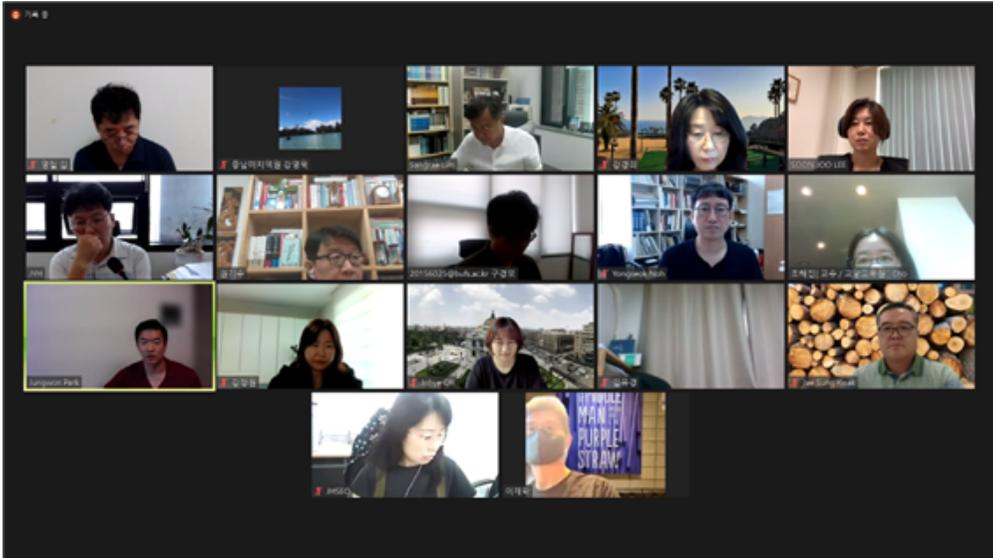
2. 2021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개최 (2021.07.16.)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포스터)

중남미지역은 지난 7월 16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남미 지역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연구아젠

다인 ‘신전환의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 연구 및 학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라틴아메리카의 생태와 문화를 재조명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토 도시 개발 협력 사례 중심으로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3. 2021 중남미지역원 정기 세미나 하반기 워크숍 (2021.10.15.~10.16)



(2021 중남미지역원 정기 세미나 및 하반기 워크숍)

중남미지역원은 10월 15일부터 양일간 정기 세미나 및 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단계 사업 (2018-2021) 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공유하며 차 단계 사업 준비를 위한 개소식을 겸했다. 특히, 2단계 사업시 진행되어야 할 연구 아젠다 및 인문학 센터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과 더불어 업무 분장 조정 회의가 진행되었다.

4.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합학술대회 공동개최 (2021.10.20.~10.22)

중남미지역원은 파크 하얏트 부산 2층 볼룸에서 개막식을 가진 HK+연합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과 서 문화와 문명 만남의 오백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를 주제로 인문한국플러스(HK+) 10월 20일~22일 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10월 20일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진행된 개막식)

이번 대회는 동과 서, 남과 북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의 문명과 문화가 초국적으로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주관으로 한국연구재단 HK+사업을 수행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이상 대학명 가나다 순)가 공동주최했다.



(10월 22일 부산외대 비즈니스텍 센터에서 열린 폐회식)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특히 16세기의 대 탐험가 마젤란이 지구를 일주한 지 5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특별히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20일 개막식을 필두로 21일부터 22일 양일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즈니스텍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총 4개 세션, 11개 패널로 총 3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개막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고, 세미나 과정은 녹화·편집 후 각 사업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5. 제 16회 인문주간 행사 개최 (2021.10.25.~10.31)



(2021년 제 16회 인문주간 행사)

중남미지역원은 2021년 제 16회 인문주간 행사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와 불평등’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10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주간 진행되었다. 온라인 화상회의(ZOOM)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남미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회의(ZOOM)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 개최식에서는 부산외대 김홍구 총장, 주한 멕시코 브루노 피게로아 대사, 재한멕시코 교수협회 사울 세르나 회장 및 중남미지역원 임상래 원장의 축사를 진행하였다.



제 2회차를 맞이하는 ‘멕시코학’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쿠바, 일본 등지에서 국내외 멕시코 연구자들이 멕시코 문학,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폭넓은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장편소설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하리(Nadie me verá llorar)〉로

호세 루벤 로메로 소설상, 소르 후아나 문학상을 차례로 수상한 멕시코의 유명 작가인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를 초청하여 특별 세션을 진행하였다.

